

Blitzkrieg

독일 국방군과 전격전(Blitzkrieg), 1939~1940

OL-21

*"모든 우리의 원칙은 방어가 최선이라는 믿음에 기초해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종류의 전쟁을 하는 적을 맞아 싸우고 있었다."
- 앙드레 블로흐, 프랑스 육군 대위*

하인츠 구데리안은 사령부 내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검은색 가죽 시트가 평소보다 뻑뻑하게 느껴졌다. 그는 잠시 일어나 찬장에 놓여 있는 위스키 병과 크리스탈 잔을 꺼내어 한 잔 가득 따랐다. 한참 동안 투명한 잔 너머로 보이는 호박색의 액체를 가만히 바라보던 그는, 곧바로 한 모금을 삼키며 방금 전까지 진행되던 회의를 떠올렸다. 사실 그것은 회의라기보단 총통 각하의 일방적인 연설에 더 가까웠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서부 전선에서 훌륭한 전과를 얻어내었다. 제군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1940년에 폴란드의 반 이상을 저 그루지아의 백정놈에게 내주었으며 이는 우리가 원하던 결과라 할 수 없다. 제군들, 우리는 이제 저 더러운 슬라브 놈들을 내쫓고 유럽의 진정한 패자가 될 것이다. 소련과의 전쟁이다. 우리는 이제 모스크바로 나아갈 것이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참모들 대부분은 아직 소련과 전쟁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감히 총통의 의견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사람이 나올 리가 없었다. 그러나 아직 영국과의 전쟁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련과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한 구데리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각하, 하지만 아직 영국이 항복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을 공격하는 것은 전선을 두 개로 만드는 일이며 양면에서 적과 싸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부디 재고해 주십시오."

그러나 총통의 고집은 그들도 익히 알고 있었다시피 이 정도로 꺾일 것이 아니었고, 그와 다른 참모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그대로 회의가 끝나버렸다. 구데리안의 시선은 다시 손 안의 위스키 잔으로 향했다. 어쨌든 소련과의 전쟁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그렇다면 참모로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잔 안에 남아있는 위스키를 한입에 털어 넣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2년간, 독일군의 성과는 분명했다. 이는 총통각 하께서 그가 주창한, 새로운 전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새로이 등장한 전차의 전략병기로써의 우수함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속전속결로 적의 저지선을 돌파하여 적을 무력화시키는 전술을 주장하였다. 처음 그가 이 작전을 주장했을 때, 다른 모두는 이에 비관적이었다. 진정한 승리란 무릇 보병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어가 마을과 언덕에 깃발을 꽂고 적을 한명도 남김없이 토벌함으로써 얻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기계화부대를 계속 확충하였으며 총통각하께서도 이 거칠 것 없는 강철의 전차의 매력에 빠져 그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 구데리안은 폴란드와 프랑스에서의 승리로 보답하였다.

그는 손에 든 빈 잔을 바라보며 지나간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 2 차대전의 서막

1918 년 11 월 11 일,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며 4 년간 1800 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 1 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다. 전례 없는 대학살을 목격한 사람들은 1 차대전을 “모든 전쟁을 끝낼 전쟁(The war to end all wars)”이라 부르며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상은 불과 20 년 뒤 훨씬 더 거대하고 참혹한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영원히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조인된 베르사유 조약은 사실상 2 차대전의 서곡이나 다름없었다.

베르사유 조약 (The Treaty of Versailles)

베르사유조약은 제1차대전의 강화를 위해 1919년 6월 28일 프랑스 파리의 베르사유에서 연합국 측 31 개국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연합국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겪은 피해에 분노해 있었고, 모든 책임을 독일에 뒤집어 씌우고자 했다. 자연히 이 조약은 독일에 대한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총 440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조약의 규정에 따라 독일은 해외 식민지를 잃고, 면적에 있어서 13%, 인구에 있어서 10%에 해당하는 유럽 영토를 삭감 당하였다. 또한 전쟁도발의 책임을 물어 연합국 손해에 대한 배상지불이 부과되었고, 군비에 대해서도 엄한 제한과 감시를 받았다. 특히 공업지대였던 라인란트와 자르, 그리고 광물자원이 풍부한 알자스-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양도하면서 독일의 산업생산력은 타격을 받게 된다. **(Exhibit 1)** 대다수 독일 국민들은 베르사유 조약의 가혹한 조항들을 연합국의 횡포로 받아들였으며, 강렬한 적개심과 분노를 품게 되었다. 나치의 부상과 2 차대전의 씨앗은 이미 베르사유에서 뿌려졌던 셈이다. 베르사유 조약에 영국 대표단으로 참가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이 가혹한 조항들이 경제적 파국과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올 것을 예견하며, 영국 수상이었던 로이드 조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정당하고 영속적인 전쟁’의 토대일 뿐입니다. 이 악몽의 현장에서 속히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나치의 부상

바이마르 공화국은 1차대전의 종전과 함께 사회민주당에 의하여 수립된 새로운 공화국 체제였다. 그러나 새로운 공화국은 태초부터 상시적인 정치적 불안에 시달렸다. 이는 바이마르 체제가 패전한 군부가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권력을 사회민주당에 넘기면서 성립되었고, 그 때문에 좌익과 우익 모두에게서 공격받았기 때문이다. 베르사유 조약은 공화국의 입지를 더욱 불안정하게 했다. 베르사유 조약에 대해 분노하던 독일의 국민들 사이에서 조약을 체결한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커져만 갔다. 얄친 데 뢰친 격으로, 전쟁 배상금을 통화를 찍어서 갚으려다가 발생한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1929년 대공황까지 덮치자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아돌프 히틀러는 1919년부터 국가사회주의노동당(나치당)에 입당하면서 반유대주의, 반공산주의,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의 폐기를 부르짖으며 부상하였다. 당수가 된 이후 그는 과격한 정치적 행동을 거듭하며 베르사유조약에 불만을 품고 있던 독일 내부의 중산층들과 보수파들을 중심으로 지지기반을 굳혀나갔다. 이에 반해 좌익은 계속해서 정치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분열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온건한 국민들조차 등을 돌려 나치를 지지하게 되었다. 결국 1933년에 히틀러는 독일의 총리로 임명되었고, 1934년 대통령인 힌덴부르크가 사망하자 히틀러가 대통령과 총리를 겸한 총통(Fuhrer)으로 집권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는 막을 내렸으며 독일은 나치 일당독재의 전체주의 국가로 탈바꿈하여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히틀러의 전쟁 야욕

독일의 재무장: 라인란트와 안슐루스(Anschluss)

1935년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에 명시된 군비제한을 철폐하고 일방적으로 재무장을 선언했다.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주변 열강들이 군축에 합의하지 못하고 도리어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는 명분이었다. 재군비선언 직후 히틀러는 징병제를 부활시켰으며, 해군과 공군력을 대폭 증강하기 시작했다. 조약의 파기에도 연합국들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자, 이듬해 히틀러는 조약에 의해 비무장지대로 선언됐던 라인란트 지역에 독일군을 진주시킨다. 이는 독일의 첫 군사적 도발이었고, 프랑스군이 원칙대로 대응했다더라면 간단히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합국들은 이번에도 대응하지 않았고 히틀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히틀러는 1936년부터 오스트리아를 병합(Anschluss)하려는 시도를 진행해 왔다. 오스트리아 나치당을 지원하고 독일과 병합해야 한다는 게르만 민족주의 선전을 통해 여론을 장악하려 했다. 1937년 말경 히틀러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내정간섭과 함께 오스트리아 나치당원인 인크바르트를 수상에 임명하도록 대통령을 협박했다. 1938년 3월 11일 수상에 임명된 그는 그와

동시에 “내전 진압”을 빌미로 독일군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1938 년 3 월 13 일 독일군은 오스트리아로 진주하였고 이어진 국민투표에 의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합병되었다.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히틀러는 1938 년 체코슬로바키아에도 눈독을 들였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상당한 공업력과 전쟁 병기들을 보유한 준 강대국이었다.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체임벌린은 히틀러가 체코를 얻는다면 그의 욕심이 멈추게 될 것이며 유럽에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히틀러의 체코슬로바키아 점령을 용인하지만 이는 오히려 체코의 우수한 병기와 공업 인프라를 히틀러의 손에 쥐어주어 독일군의 재무장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영국과 프랑스의 반응: 유화정책 (Appeasement Policy)

히틀러의 노골적인 침략 야욕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미국은 유럽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고립정책(isolation policy)을 표방하고 있었고,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스트당이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히틀러와 동맹을 맺었다. 러시아는 1917 년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정치적으로는 파시즘과 정반대인 공산주의 소련 정부가 지배하고 있었으나, 신생국으로서 입지가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였으므로 오히려 독일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독일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유럽의 두 강대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유일하였는데, 이들은 유화정책(appeasement policy)으로 일관했다. 1 차대전의 피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두 나라는 갈등이 전쟁까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히틀러의 야욕을 과소평가하였다. 그들은 히틀러의 영토 욕심이 기본적으로 국내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며, 욕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나면 더 이상의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훗날 밝혀졌듯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으며 독일에게 힘을 비축할 시간을 벌여준 꼴이 되고 말았다.

1939 년, 오스트리아와 체코의 합병 성공에 고무된 히틀러는 곧 1 차대전의 설욕과 유럽 지배를 위한 전쟁 야욕을 드러냈다. 그는 군부를 소집한 후 전쟁개시를 주저하는 자들을 파면하고, 자신이 국방장관을 겸임함으로써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유럽에 전운이 드리우고 있었다.

신기술의 등장: 전차, 기갑전, 공군

1 차대전은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인명피해가 일어난 전쟁이었다. 그것은 주로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학살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었다. 과거의 전쟁은 넓은 전장에서 대규모 보병대의 맞대결과 기병의 빠른 돌파로 특징지어졌는데, 기관총과 포의 등장으로 이러한 전술은 1 차대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Exhibit 2)**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야포와 1 분에 600 발의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기관총을 향해 정면 돌격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는 어김없이 수만에서 수십만 병력의 대규모 학살과 함께 실패로 이어졌고, 이 때문에 1 차대전은 대규모 맞대결 대신 양측이 서로 참호를 파고 들어가 대치하는 방어적 성격의

전투가 주를 이루었다. 전선이 크게 움직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전쟁 양상이 기동성(mobility) 중심에서 화력(firepower)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다. **(Exhibit 3)**

이러한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전쟁 후기에 등장한 것이 바로 항공기와 특히 전차였다. 전차는 1917 년 영국이 서부전선에서 참호를 돌파하기 위해 처음 개발하여 사용했다. 이들 신무기는 기동이 뛰어나고 장갑으로 둘러싸여 있어 기관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었으나, 초기 전차의 성능은 깊은 인상을 주지 못하였다. 지금은 모든 전차에 장착되어 있는 길쭉한 주포(tank gun) 대신 가벼운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아예 무장이 없는 모델도 많았다. 따라서 1 차대전에서 전차의 역할은 보병의 진격을 엄호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참호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전쟁의 양상을 바꾸게 될 전차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알아본 소수의 장교들이 있었다. 이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쪽은 전차의 개척자인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니라, 외려 1 차대전 당시에는 전차에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던 독일이었다.

영국군과 신기술

영국은 전차를 제일 먼저 개발했을 뿐 아니라 이를 주력으로 활용하는 기갑전 전술 또한 가장 먼저 발전시켰다. 영국의 육군 장교였던 보니 풀러(Fuller)는 기갑전의 선구자였다.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군인이었던 그는, 전차를 말뿐만 아니라 보병도 쓸모없게 만들 경이로운 무기라고 생각했다. 그는 항공기의 지원을 받는 전차가 적의 후방까지 돌파하여 지휘본부를 격멸하는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독일군이 1939 년에 실행한 이론이었다. 실제로 영국은 독일이 단 한 대의 전차도 보유하지 못했던 1927 년에 최초로 시범 기계화사단을 창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견지명에도 불구하고 전차와 기갑전은 결코 영국군에서 주류 의견으로 자리잡지 못했으며, 영국이 1939 년에야 비로소 허겁지겁 기갑사단을 편성할 때에는 이미 기갑전의 선두를 빼앗긴 상태였다. **(Exhibit 3)**

초기 전차의 미흡함 앞서 살펴보았듯 초창기의 전차는 기술적으로 미흡했고, 전장에서의 역할 또한 제한적이었다. 1917 년 최초로 실전투입된 마크 1 시리즈 전차는 이동속도가 매우 느렸으며, 무거운 장갑으로 인해 잦은 엔진오류를 일으켰다. 또한 당시에는 용접 기술이 부족하여 전차의 장갑을 못질로 고정하였고, 이 때문에 장갑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빈번하여 기관총 사격으로부터 보병을 방어한다는 원래의 목적조차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기대 이하의 성능에도 불구하고 생산 비용은 높았으며 무려 여덟 명의 승무원이 탑승하여야만 했는데, 이는 하루에 수천명씩 죽어나가는 전쟁 상황에서 지나친 인력의 낭비였다. 1 차대전은 전차가 이러한 기술적 결함들을 극복하고 역량을 발휘하기 전에 끝나버렸다. 영국군은 1919 년에 수천 대의 전차를 생산하여 배치하고 대규모 기동 작전을 실행할 계획이었으나, 1918 년 11 월 종전과 함께 이 계획을 파기했다. **(Exhibit 4)**

군 내 보수주의 당시 유럽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만연해 있던 군 내 보수주의 또한 신무기의 발달을 가로막았다. 그 중에서도 영국은 전통적으로 뿌리 깊은 귀족사회를 형성하고 있었고, 시민혁명을 겪은 프랑스나 신생국 독일보다도 보수적 경향이 강하였다. 더구나 19 세기 말까지 영국군에서는 돈으로 장교 계급을 사는 매관매직이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위 장교들이 귀족 출신이었다. 이들은 쫓덩이가 전투를 수행하는 것을 불명예스러운 일로 생각하였고, 말을 타고 싸우는 것이야말로 기사도에 걸맞은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이들은 잘 기른 말이 전차를 능가하는 기동성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초기 전차의 기능적 미흡함은 그들의 견해에 부채질을 하는 결과를 낳았다. 1927 년 영국군의 시범 기계화사단의 기동훈련을 참관한 러디아드 키플링(Kipling)의 술회가 당시의 지배적인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정비공장이나 서커스를 보는 것 같았다.”

지리적 특성 한편 영국은 전통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나라였다.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바다를 잘 지키면 침략을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전략은 수백년간 그럭저럭 영국의 안전을 담보해 왔다. 영국은 1 차대전을 경험한 이후에도 육지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사실 유화정책이 보여주듯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 자체를 낮게 보았다. 이에 영국은 해군과 공군에 국방예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였다. 육군은 식민지의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 정도를 할 뿐이었다. 해군과 공군 소속 군인들이 육군을 낮춰 보는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각 군 사이의 협동성은 낮은 편이었다. 공군은 타 군의 작전을 지원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적의 항공기와 교전하거나 기갑시설이나 인프라를 타격하는 전략폭격을 주요한 임무로 여겼다.

프랑스군의 특성

강력한 육군 프랑스는 영국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병력의 숫자로 보나 장비의 성능으로 보나 프랑스의 육군 전력은 독일을 포함한 어떤 나라보다도 월등했다. 프랑스에서 폴러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적극 주장한 사람은 그 유명한 샤를 드골이었다. 그는 공군의 지원을 받는 전차를 중심으로 한 “기습부대(shock troop)”의 창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의 영향으로 프랑스는 1920~30 년대에 전차 발전에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압도적으로 뛰어난 성능의 전차를 개발할 수 있었다. 프랑스군의 샤르 B1 중전차의 경우, 독일군 전차가 발사한 포탄이 장갑에 맞으면 도로 튕겨나올 정도였다. (Exhibit 5)

방어주의 프랑스군은 기본적으로 방어전 교리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프랑스군은 1870 년 프로이센과 벌인 전쟁에서 프로이센군의 기동성 중심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패배하는 쓰라린 경험을 하였다. 이에 1 차대전이 임박했을 때는 체계적이고 잘 계획된 방어 전술로 독일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프랑스는 1 차대전 참전국들 중 가장 많은 수의 병력을 잃었는데, 이러한 대학살을 목격한 프랑스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규모 희생을 피하려고 했다. 1 차대전 이후 프랑스가 독일 국경을 따라 건설한 마지노선(Maginot Line)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노선은 가공할 만큼 견고한 방어 시설로, 사실상 참호의 화력을 증강하고 요새화한 것과 다름없었다. 실제로 독일군은 프랑스 침공 당시 마지노선을 대부분 뚫지 못했다. **(Exhibit 6)**

정치적 불안정 프랑스는 18 세기 이래 숭한 혁명과 격변을 겪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다. 특히 양차대전 사이에 집권한 좌익 인민 전선 정부는 군대의 반동 음모를 상존하는 위협으로 보고 군을 매우 불신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대를 잘게 쪼개 편성함으로써 군대가 응집된 힘을 통솔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전문적인 직업군인보다는 징집병을 중심으로 군대를 운용하였다. 같은 이유로 전차 또한 독자적인 전투보다는 보병과 포병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갑 위주로 생산 및 편성되었다.

지휘체계 프랑스군의 지휘체계는 상당히 중앙집권화되어 있었다. 군 수뇌부는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의 대저택에 위치하였고, 전선과 지휘부 사이에서 보고와 명령이 오가는 데에만 며칠이 걸렸다. 따라서 대부분의 작전은 임기응변보다는 사전에 촘촘하게 계획된 매뉴얼을 따라 전개하는 편을 선호했다. 이러한 지휘체계와 군부에 대한 불신이 맞물려 대다수의 초급 장교나 부사관들에게는 능동적으로 부대를 지휘할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것은 비단 프랑스뿐 아니라 영국군도 공유하고 있는 특성이었다.

독일의 재무장 (1919~1939)

영국과 프랑스가 나름의 방식으로 군대를 운용하는 동안, 독일군은 훨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 배상금을 비롯한 각종 제약들을 강요했다. 독일군 또한 이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 연합국들은 독일이 다시는 적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자 했다. 1 차대전 종전협정이 조인된 1918 년 11 월, 독일은 약 400 만명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으나,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군의 규모를 10 만명 이하로 제약하였다. 또한 육군은 전차를 보유할 수 없고, 해군 함정은 일정 톤수 이하의 함정만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군용 항공기를 보유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공군은 사실상 해체되었고, 수많은 엘리트 군인을 배출했던 참모본부는 폐지되었다. 이처럼 가혹한 조건들에 독일 국민과 군인들은 분노했고, 새로운 공화국 체제인 바이마르 정부가 입각한 1919 년부터 독일은 비밀리에 재무장에 돌입하게 되었다.

독일군의 재무장은 육군참모총장인 한스 폰 섹트(Hans von Seeckt)의 주도하에 베르사유 조약의 군축 조항들을 비밀리에 위반하거나 우회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나치 집권 이전인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재무장이 그 규모나 실효성 면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1933 년 나치가 집권하고 1935 년에는 공개적으로 베르사유 조약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독일군의 재무장은 박차를 가하게 된다.

참모본부의 존치 독일은 세계 최초로 참모본부(General Staff)를 설립한 나라였다. 참모부는 군에서 가장 유능한 장교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행정 및 병참 등 군 운영을 총괄하는 지휘 체계의

정점이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평시에 전쟁사 및 전략·전술 등 군사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테이블에서 모형으로 진행하는 가상 워게임이나 대규모 야전 기동 훈련 등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개방적이고 실험적인 지휘 기법들을 개척한 것도 독일군 참모본부였다. 20 세기 들어서는 다른 나라들도 참모본부를 운영하였으나 독일만큼 효율적이지 않았다. 연합국들이 베르사유 조약의 일환으로 참모본부의 폐지를 요구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독일은 행정부 산하에 '육군통수부(Truppenamt)'라는 새로운 조직을 창설한 다음 참모본부 조직을 그대로 이전시키는 연막작전으로 참모본부를 보존할 수 있었다. 이로써 독일군은 1 차대전 경험에서 축적된 전쟁 노하우를 그대로 연계 발전시켜, 언젠가 다가올 새로운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강요된 무장해제라는 특수한 제약조건 하에서 독일이 새로운 기술과 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었던 데에는 참모본부의 역할이 컸다.

라폴로 조약 1 차대전 당시 독일과 러시아는 동부전선에서 싸운 적대국이었으나, 1917 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해 두 나라는 일찍 강화조약을 맺었다. 두 나라는 모두 패전국이었고, 소련의 경우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로 전후 국제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1922 년 독일과 소련은 각종 경제 및 군사 상호 협력을 위한 라폴로 조약(Rapallo Treaty)을 체결한다. 독일은 소련에 군수공장과 훈련장을 짓고, 자국에서 생산할 수 없었던 전차와 항공기 등의 신무기를 개발하고 나중에 전격전의 바탕이 될 새로운 전술을 실험하였으며, 자국 내에서 사관학교를 운영할 수 없었기에 장교들을 소련으로 파견하여 훈련시켰다. 그 대가로 소련은 독일의 우수한 공업 및 군사기술을 제공받아 그 나름대로 뛰어난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었다.

군의 엘리트화 독일은 애초부터 베르사유 조약을 충실히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 10 만 명이라는 병력 제한 또한 언젠가는 무력화시키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된다 해도 다시금 대규모 병력을 징집해 훈련시키려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 뻔했다. 이에 독일군은 현재의 10 만 병력을 모두 지휘통솔능력을 갖춘 엘리트 장교 및 부사관으로 육성한 다음, 훗날 대규모로 징집하게 될 사병들을 지휘케 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쾰프는 "군은 소수일수록 전문화될 수 있다"는 신념을 설파하며, 고급 장교는 장성의 역할을, 초급 장교는 고급 장교의 역할을, 하사관은 초급 장교의 역할을, 사병은 하사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그리고 부사관 이상의 모든 군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주어 급박하게 전개되는 전투 현장에서 임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이 때 육성된 엘리트 군인들은 훗날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징집 사병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었다.

독일과 신기술: 전격전의 맹아

1 차대전의 유산

참호전에 대한 영국의 대응방안이 전차였다면, 독일군은 돌격대(Sturmtruppen) 전술을 활용했다. 소규모 보병부대가 적의 참호선 중 취약한 부분에 빠르게 침투하여 후방을 기습, 적진에 균열을 내면, 그곳을 본대가 공격하여 방어선을 돌파하고 적을 섬멸하는 방식이었다. 전쟁 말기인

1918 년에 사용된 이 전술은 약간의 성공을 거뒀으나, 돌격대가 만든 균열에 본대가 충분히 빠르게 진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기동성 부족으로 인해 돌격대 전술은 전쟁의 판도를 뒤집지는 못하였다.

한편 독일군은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웠다. 영국과 프랑스와 맞선 서부전선에서는 지루한 참호전이 계속된 반면, 러시아와 싸운 동부전선의 사정은 훨씬 나았다. 동부전선의 전황은 참호전의 진창에 빠지지 않고 훨씬 더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첫째로 참호전을 시행하기에는 전선이 너무 넓었고, 둘째로 동부(특히 러시아)의 산업발달이 미진하여 기관총이나 포병 등 강력한 화력의 최신 무기보다는 보병과 기병의 전통적 전력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는 독일군 지휘부로 하여금 서부전선과는 다른 전술을 실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전후 참모부는 1 차대전 경험의 바탕으로 기동성을 바탕으로 한 전술의 가능성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었다.

구데리안과 전격전의 맹아

영국이나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독일 군부 내에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반감은 상당 부분 존재했다. 보수적인 장교들은 여전히 전차보다 말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고, 차량을 이용해 부대를 수송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차량화의 개념을 접한 한 장군은 “이런 염병할! 트럭은 밀가루를 나르는 데나 쓰는 거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군에게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는데, 바로 참모본부를 통해 서로 대립하는 원칙들을 실제로 실험해보는 지적인 엄격함이었다. 그것은 전사 연구, 워게임, 야전 기동훈련 등의 실험적 방식들을 세계 최초로 개척했던 프로이센 군으로부터 내려오는 유구한 전통이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결정적으로, 독일군에는 풀러와 하트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그 실천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장군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하인츠 구데리안이었다. (Exhibit 7)

구데리안의 사상

구데리안은 프로이센 장교의 아들로 태어나 보병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1 차대전이 발발할 때 소위 계급의 통신장교였던 그는 보병부대의 참모장교로 종전을 맞았다. 전쟁 말기에 등장한 전차에 깊은 인상을 받은 그는, 1924 년대에 차량화 수송부대 참모장교가 되면서 기갑부대 활용에 관한 생각을 발전시켜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풀러 등 기갑전의 선구자들이 쓴 저작들을 연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상 전격전의 교범이나 다름없는 책인 『차렷, 전차! (Achtung, Panzer!)』를 집필했다. 그가 주창하고 훗날 전격전으로 실현되는 이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계화(Mechanization) 군대의 모든 운송수단은 기계화될 것이다. 기병은 전차로 대체될 것이고, 보병들도 트럭이나 장갑차로 운송하는 기계화보병(mechanized infantry) 부대로 편성해야 한다.

합동작전(Combined arms) 전차는 혁신적인 무기이지만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전차는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고, 포병이나 수류탄을 던지는 보병에게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차가 빠르게 적진을 돌파한다고 해도 결국 영토를 점령하고 깃발을 꽂는 것은 보병이었다. 이 때문에 전차는 전차를 엄호할 보병과 험준한 지형이나 장애물 통과를 지원하는 공병, 그리고 지상군과 밀접하게 협력하는 공군 등과 함께 합동작전을 펼쳐야 한다.

전술폭격(Tactical bombing) 기존에는 국가 기간시설이나 인프라 등 중요한 전략목표들을 파괴하는 것이 공군의 역할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상대국의 역량에 전반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었으나 당장 전선에서 싸우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었다. 이에 구데리안은 공군이 지상군의 빠른 진격을 돕는 전술폭격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의 방어진지나 전차 등을 타격하는 근접항공지원(close air support)은 지상군이 맞닥뜨리는 저항을 최소화하고 전선을 빠르게 돌파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독일군은 이를 받아들여, 목표물에 급강하해 폭탄을 투하하여 명중률을 극대화시킨 슈투카(Stuka) 급강하폭격기를 비롯, 근접항공지원에 최적화된 항공기들을 개발하였다.

무선통신(Radio communications) 통신장교로 군 생활을 시작했던 구데리안은 모든 전차에 무전기를 설치하도록 종용했다. 급박하게 전개되는 전장에서는 재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하달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차를 비롯해 보병, 공병과 공군 등 다양한 전력과의 치밀한 협동에도 무선통신은 핵심적인 도구였다. 독일 군인들에게 부여된 상당한 자율성과 능동성, 그리고 전선에 밀착된 현장 지휘를 중시하는 독일군의 문화는 이러한 전술을 가능케 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구데리안은 이를 종합하여, 전차를 중심으로 공군의 지원을 받는 기계화부대가 빠른 속도로 적의 방어선을 기습 공격하여 돌파하고, 전열이 흐트러진 적을 후방에서 포위하여 후속부대와 함께 섬멸함으로써 단기에 승리를 거머쥐는 전술을 제시하였다. 즉 전격전은 화력 중심, 방어전, 장기전으로 대표되는 1 차대전의 전쟁 양상과 모든 면에서 반대되는 것이었다.

전격전 전술의 본격화와 스페인 내전

구데리안은 차량화부대사령부의 참모장으로 있던 1934 년, 부대의 야전 기동훈련을 참관한 히틀러에게 자신의 사상을 소개할 수 있었다. 히틀러는 이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그게 내가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내가 갖고 싶었던 거지!”라고 외쳤다. 이 때의 전차는 이미 초기의 기술적 결함을 대부분 극복하고 육군의 주요 전력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 있었다. 대부분의 전차가 시속 3~40km 의 속력을 내며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했고, 장갑은 총탄뿐 아니라 일부 포탄도 튕겨낼 정도로 견고해졌다. 또한 필요한 승무원 수는 다섯 명으로 줄어 병력 부담이 완화되었다. 1935 년, 독일이 공식 재군비를 선언하면서 기갑사단이 새롭게 창설되었고, 구데리안은 제 2 기갑사단의 사단장이 되어 히틀러의 전폭적 지지 하에 독일군을 전격전에

적합한 군대로 재편하기 시작했다. 그의 기갑사단은 전차뿐 아니라 트럭 및 오토바이 보병 및 장갑차, 공병대, 포병 등 합동작전을 염두에 둔 종합병과부대로 편성되었다.

1936 년, 스페인에서는 내전이 발발하였다. 공화주의 정부에 대해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우파 반란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반란군은 파시스트 체제의 독일과 이탈리아에 지원을 요청했고, 히틀러는 공군과 육군에서 자원한 병력을 공-육 합동부대인 콘도르 군단(Condor Legion)으로 편성하여 스페인에 파견하였다. 여기서 독일군은 소박하게나마 새로운 전술을 실전에서 미리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슈투카 급강하폭격기가 처음 실전배치되어 활용된 것도 스페인 내전이였다. **(Exhibit 8)** 한편 스페인 정부군 또한 영국, 프랑스, 소련 등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영국과 프랑스는 국제연맹의 중립 조항을 내세워 개입을 거부하였으며 오직 소련만이 물자와 병력을 지원하였다.

전격전의 승리: 제 2 차 세계대전 (1939~1940)

1939 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의 합병을 마무리한 다음 폴란드로 눈을 돌렸다. 8 월 28 일, 히틀러는 폴란드에게 서부 단치히 지역의 양도를 요구했는데, 이는 단치히가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빼앗긴 영토이며 거주민들의 다수가 독일계라는 명분 때문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은 폴란드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연합국들이 실질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상태였다. 이에 9 월 1 일, 독일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워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 2 차 세계대전이 시작된다.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연합국들은 독일에 군사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고, 독일이 이를 묵살하자 9 월 3 일에 독일에 선전 포고한다.

폴란드 전장에서 독일군은 공군의 지원을 받는 기갑부대가 적을 타격하고 뒤이어 진격하는 보병이 남은 적을 포위 섬멸하는, 전격전의 초기 형태로 작전을 실시한다. 독일군은 엄청나게 빠른 진격 속도로 개전 26 일만에 바르샤바에 입성하여 폴란드를 완전히 점령한다. 외신들은 앞다투어 독일군의 새로운 전쟁 방식을 취재하며 여기에 “전격전(blitzkrieg)”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폴란드전은 구데리안이 고안한 전술이 완전히 실현된 전쟁이 아니었다. 비록 기갑부대와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이라는 요건은 충족했지만, 병력의 전개 방식은 아직 전통적인 방식에 가까웠다. 독일군 수뇌부의 조심스러운 태도 때문이었다. 또한 폴란드와 독일의 군사력 차이는 압도적이었다. 독일군의 병력은 170 만 여명을 헤아리는 규모였다. 반면에 폴란드는 100 만명을 밑도는 병력을 투입하였으나 이마저도 동쪽에서 침공해오는 소련에 맞서 싸우느라 사실상 절반의 병력으로 독일군에 맞섰다. 또한 폴란드군은 구식 장비를 사용했으며 교육, 훈련, 부대 지휘 방식 등 거의 대부분을 과거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폴란드전은 전격전의 전술적 승리라고 평가하기 어려웠다.

프랑스 전투 (1940)

폴란드에 뒤이어 독일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해 빠르게 점령했다. 덴마크는 영국과 프랑스군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단 몇 시간만에 항복했고 노르웨이 또한 두 달을 버티지 못했다. 다음 목표는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고, 폴란드나 북유럽 국가들처럼 호락호락한 상대가 결코 아니었다. 독일군의 C 집단군 사령관 리터 폰 레프 상급대장은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에서의 전쟁은 폴란드처럼 쉽게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어 희생을 치를 것이다” 많은 독일군 장성들이 이 시각을 공유했다.

이미 여러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1940 년까지도 독일군의 무장 상태는 비교적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독일군은 서부전선의 육군 병사 25%가 40 세 이상이었으며 50%는 몇 주짜리 기초 군사 훈련만 수료한 신병들이었다. 당시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던 차량은 민간 징발을 포함해 30 만대 가량이었으나 독일군은 겨우 12 만대 정도를 모을 수 있었다. 독일군의 기계화 비율은 10%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으로 프랑스에 한참 뒤쳐졌고, 여전히 말이 이동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의 숫자 또한 무려 1 천대 이상 차이가 났다. 장비의 질적 수준 또한, 비등했던 공군을 제외하면 프랑스군이 독일군보다 더 뛰어났다. 그러나 상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이는 오로지 탁월한 전술 덕분이었다.

낮질작전

독일군에게 있어 가장 큰 골칫거리는 마지노선이었다. 독일-프랑스 국경 전체에 걸쳐 구축된 이 요새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마지노선이 없는 북쪽의 벨기에에는 프랑스군과 영국 원정군 병력이 대거 주둔하며 독일군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독일군은 벨기에와 마지노선 사이에 위치한 아르덴(Ardennes)에 주목한다. 아르덴은 울창한 삼림지대로 프랑스군조차 자연 방벽으로 간주하고 마지노선을 확장하지 않은 지역이었다. 심지어 그곳을 방어하는 프랑스군은 제대로 된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예비군 부대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전차의 기동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간과하고 있었다. 독일군은 병력을 양분하여 한 쪽은 벨기에를 공격하여 연합군을 묶어두고, 나머지 병력은 아르덴을 통과한 다음 후방에서 벨기에의 연합군을 포위 섬멸하는 ‘낮질(Sichelschnitt)’ 작전을 계획하였고, 5 월 10 일에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프랑스 침공을 개시한다. **(Exhibit 9)**

낮질작전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구데리안이 이끄는 기갑부대는 성공적으로 아르덴 삼림지대를 돌파했다. 험준한 지형 때문에 진격이 평소보다 느려진 구데리안의 기갑군단은 수천 대의 전차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장관을 연출했다. 이 때 연합군이 공군을 동원하여 이들을 타격했더라면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었을 것이고, 연합군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독일군은 전격전 교리에 충실하게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을 받고 있었다. 연합군의 공습은 대개 실패로 돌아갔다. 더욱이 대부분의 연합군 병력은 벨기에 전선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공격을 개시한지 단 이틀만에 아르덴을 통과한 독일군은 벨기에를 공격하던 부대들과 합류하여 연합군 전력을 포위 공격했다.

이윽고 구데리안이 이끄는 독일군은 뢰즈 강변에 도달한다. 뢰즈 강은 독일군이 넘어야 할 마지막 자연적 관문이었다. 강 너머로는 영국해협까지 오로지 평야만 펼쳐져 있었다. 프랑스군은 뢰즈 강에 설치된 교량을 모두 파괴하고, 반대편에서 벙커와 참호를 파고 독일군이 공격해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들은 독일군이 집결해서 강을 건너려면 여러 날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때가 1914 년이었다면 그것은 옳은 판단이었겠지만, 그들이 대면하고 있는 적은 그들의 상상 이상으로 뛰어난 기동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전격전 교리에 따라 공군과 공병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독일군은 먼저 슈투카 폭격기를 이용하여 건너편의 프랑스군에 맹렬한 폭격을 가한 다음, 보병부대가 강을 도하하여 교두보를 확보했다. 거기서 공병부대는 빠른 속도로 부교를 설치하였고, 자정 즈음에는 이미 독일군 전차가 뢰즈 강을 건너고 있었다. 부교와 부교를 건너는 전차부대를 공격하려는 영국 공군의 시도는 독일 공군의 반격에 번번히 저지당했다.

성공에 고무된 구데리안과 야전 지휘관들은 여세를 몰아 엄청난 속도로 연합군을 몰아붙였다. 전격전의 빠른 돌파에 혼비백산한 연합군은 이미 전의를 대부분 상실한 상태였다. 독일군은 오직 산발적인 저항만을 받으며 연합군을 몰아붙였고, 5 월 20 일에는 이미 영국해협에 도달했다. 연합군은 여기서 괴멸만을 간신히 면하고 영국으로 철수했다. 6 월 13 일에는 파리가 함락되었다. 전쟁을 종용하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내부의 여론에 의해 프랑스는 두 번이나 수도를 옮겨가며 저항하지만 이미 패색이 너무 짙었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전략 예비군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프랑스 총사령관 가믈랭 장군은 어깨를 들썩이며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결국 6월 16일 휴전 찬성자들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독일과 휴전하였다. 이로써 독일은 일부 중립국과 동맹국, 그리고 영국을 제외하고는 단 9 개월만에 유럽 전역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 것이다. 1918 년에 독일이 처했던 가혹한 상황, 그리고 1940 년까지도 변함없었던 독일군 전력의 상대적 열세를 생각하면 실로 기적과도 같은 승리였다. 그리고 그 승리는 전적으로 전격전 전술과 이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연합국의 실수에 빚지고 있었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구데리안의 시선이 다시 손 안의 크리스탈 잔으로 향했다. 지난 2 년간 그들은 승리해왔다. 하지만 저 광활한 러시아의 동토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 비어있던 잔에 위스키를 한 잔 더 따르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들었다.

Case Questions

1. 독일군은 전격전을 일찍이 수용하여 상대적 전력 열세를 극복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독일군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2. a) 연합군은 탱크와 기갑전 교리를 먼저 개발하고도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연합군이 실패한 요인은 무엇일까?
b) 수업시간에 배운 개념들을 적용하여 토론해 보자.
3. 독일군은 동부전선에서도 전격전을 활용하여 승리할 수 있을까?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구데리안의 입장에서 히틀러에게 조언해 보자.
4. 전격전 사례와 유사한 비즈니스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부록

Exhibit 1: 1차대전 이전과 이후의 유럽 지도



Exhibit 2: 1차대전에서 사용된 맥심 기관총



Exhibit 3: 전쟁 양상의 변화



1870년의 보불전쟁(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의 전투를 묘사한 그림. 잘 정렬된 보병들이 넓은 전장에서 대치해 사격을 주고받고, 기병대가 그 사이로 빠르게 돌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야포와 기관총 등의 대량살상무기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의 전쟁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차대전 당시의 영국군 참호. 위의 그림과는 대조적으로, 참호 안에 몸을 숨기고 적과 대치하는 1차대전의 전형적인 전쟁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참호에는 철조망과 기관총 등 방어용 무기와 각종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후방에는 포병부대가 주둔했다. 이로 인해 전쟁의 추가 기동성에서 화력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Exhibit 4: 영국군이 2차대전에 투입한 Mark IV 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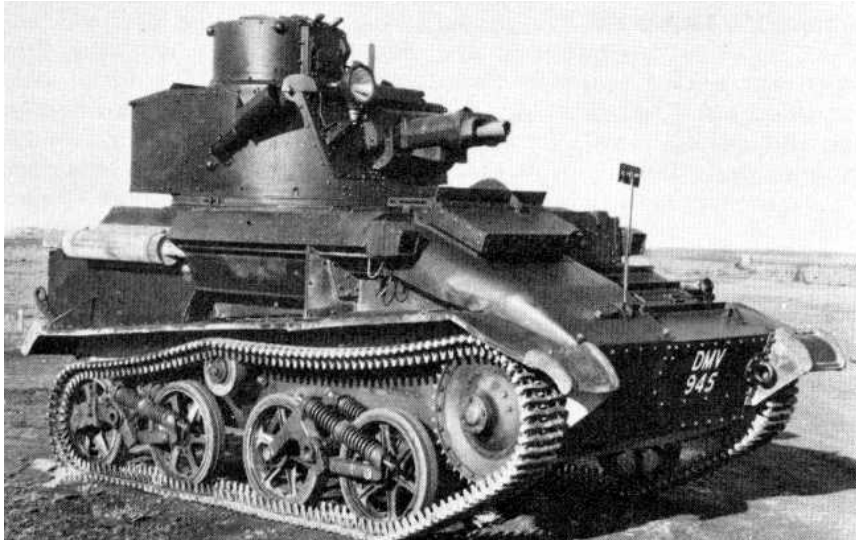


Exhibit 5 영국군이 개발한 최초의 전차 Mark I



Exhibit 6: 프랑스의 주력 중전차 Char B2



Exhibit 7: 하인츠 구데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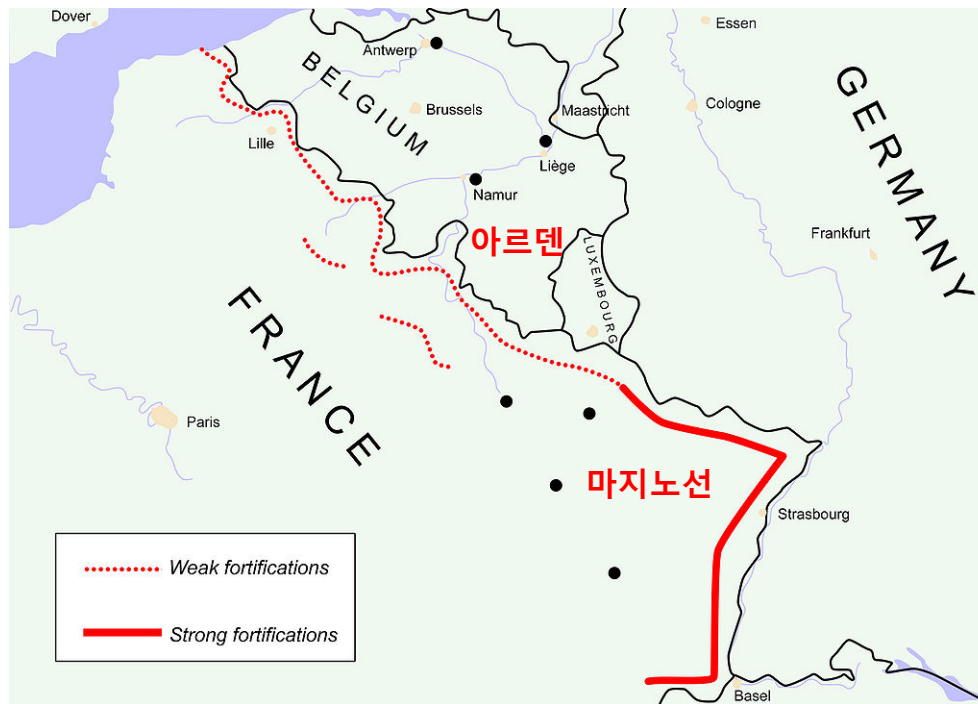


Exhibit 8: 콘도르 군단 소속의 슈투카 폭격기



슈투카 급강하폭격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표적(탱크, 병거 등)을 정밀타격하기 위해, 표적 위로 급강하한 다음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Exhibit 9: 독일군의 프랑스 침공 루트



Exhibition 10: 전격전



전격전은 공군의 지원을 받는 기갑부대를 중심으로 빠른 기동성을 활용,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후방의 지휘부를 타격하고, 흐트러진 적을 후속부대와 함께 포위섬멸하여 단기간에 전쟁을 종결하는 군사전술이다. 전격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갑부대의 육성과 각 군의 긴밀한 협동, 그리고 전방위적인 기계화가 필수적이었다.